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성공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4월 4일 월요일 (음 2월 27일) 제153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1 2
3 4

전북 필승 지원 유세

1.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의 더컸유세단의 단장인 정청래 의원(오른쪽)과 김빈 빈컴퍼니 대표(왼쪽)가 하정열 후보(가운데)의 승리를 다짐하며 함께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2.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왼쪽 세번째)가 김춘진 후보(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당내 여성 비례대표 후보들과 함께 손을 들어보이며 총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3. 같은 날 국민의당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와 정동영 등 전주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전주동물원을 찾아 공약과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4. 같은 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같은 당 소속 후보군들의 지원유세를 위해 전북 익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익산지역 후보자들과 승리를 다짐했다.

4.13 총선 D-9

더민주·국민의당 지도부, 전북 주말유세 격돌… "표심을 잡아라"

더민주 김종인 대표
전북 연고 적극 부각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수권정당의 길로 갈 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4.13총선 공식선거 운동 첫 주말 유세일에도 야권 맹주를 둘러싸고 한 치 물러섬 없는 전북을 방문해 융단폭격에 나섰다.

김제에서 시작해 '호남 바람몰이'에 나선 더민주 김종인과 국민의당 안철수 각 당 대표는 야권의 전통적인 표밭이지만,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된 전북에서 양보 없는 혈투를 벌이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2일 김제·부안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어느 때 보다 강하게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놨다.

그는 "지난 8년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청년들이 낙심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역동성이 사라진 시기였다"며 "만약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내년 대선에서 집권에 실패하면 20년 이상을 더 잃어버린 채 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김춘진 의원 상대당 후보들을 보니 김제를 대변할 자질을 가졌는지 염려되는 사람들"이라며 "김 의원에게 총선에서 압도적인 표를 보내준다면 김 의원이 중앙에서 김제 발전을 위해 보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김 의원을 치켜세웠다.

이어 김 대표는 전주 덕진공원의 '김병로 동상'과 순창 소재 조부 생가를 예정 없이 방문하는 등 전북 연고를 부각시켰다.

김 대표는 조부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생가를 찾은 자리에서 "요즘은 정치인들이 예전만큼,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다"며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당에서 안될 것 같으니까 밖으로 나간 것"이라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나갔다.

안 대표의 첫 행선지 역시 김제·부안 선거구였다.

안 대표는 2일 김제전통시장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합리, 개혁적인 이탈자들을 담을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30% 이하로 추락시키고 반드시 정권교체 가능한 정당을 건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 대표는 이어 천정배 공동대표와 함께 도내 최대 격전지인 전주 덕진에 도착했다.

안 대표는 본격적인 유세에 나서기 전 이 지역구 정동영 후보와 함께 덕진체련공원에서 펼쳐진 축구 행사에 참여했다.

축구화까지 신고 골 사냥에 나선 정 후보는 두 골을 기록했지만, 안 대표는 무득점에 그쳤다.

하지만 안 대표는 경기 후 곧바로 유세차에 올라서는 더민주에 대해 예리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전주 동물원 지원유세에서 "더민주는 말로만 혁신을 외칠 뿐, 대통령 후보 한 명만을 위한 정당으로 되돌아가 또다시 만년 2등 야당의 길을 선택했다"며 "박근혜 정권과 여당에 겁먹어 이길 생각도 못하는 더민주 대신, 진정한 호남정당인 국민의당이 수권정당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동반 지원유세에 나선 천 공동대표는 "친문 패권을 청산해야 한다. 정권교체를 해낼 수 없는 세력으로, 대선에서 한계가 드러났다"면서 "이번에도 더민주 후보를 당선시키면 결국 호남은 패권세력의 하청업자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더민주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특별취재반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 오늘부터 7일까지 세차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를 총 3회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중앙선방위에 따르면 4일에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참여하는 가운데 '경기침체 극복방안' 등에 대한 1차 토론회가 열린다.

6일에는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 중 초청대상 정당에 포함되지 아니한 정당 17개 가운데 참석승낙서를 제출한 16개 정당이 참여해 '각 당의 대표 공약'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아울러 7일에는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이 참여한 가운데 '정치쇄신 방안', '남북.외교 문제',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한편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KBS 및 네이버 총선 특집 페이지를 통해 전국에 동시 생중계된다. /이성주 기자

▶ 매일 INDEX
8면 원불교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8일 개최

주최 : 85연합동창회 주관 : 옥천골 벚꽃축제 제전위원회 후원 : 순창군 · 벚꽃축제 후원회
옥천골 벚꽃축제에 후원하실 뜻있는 회원님을 모십니다. (☎010-5682-2382 / 010-7687-0122)

▲제16회 옥천골 벚꽃축제 일정별 행사내용

4월 7일(목)	17:30 ~ 19:00	여성난타, 여성 섹소폰 공연, 밸리댄스 공연
	19:00 ~	군민노래자랑 예선
4월 8일(금)	10:00 ~ 15:00	어린이 사생대회(순창문화원)
	17:00~17:30	섹소폰 공연, 가야금병창
	17:30~18:00	트로트신동 공연, 민요
	18:00~19:00	L-NET,TV 출연가수 공연
	19:00 ~ 19:30	트로트가수 정해진 공연
	19:30 ~ 19:50	개막식
	19:50 ~ 20:00	불꽃놀이
	20:00 ~ 21:30	순창음악협회 공연
4월 9일(토)	15:00 ~ 15:30	민물장어잡기 행사(현장접수 및 전화접수 가능)
	17:30 ~ 18:30	힐링포엠(오서영 교수외 9명) 시가내리는 한옥마을 후원(시낭송)
	18:30 ~ 19:00	마술공연 지혜준 마술사
	19:00 ~ 20:00	가요무대(60.70년대 어려운 시기에 희망의 메시지 흘러간 옛 추억의노래 30곡 공연(깔맛레 봉사단)
	20:00 ~ 21:00	군민 즉석 노래자랑
4월 10일(일)	15:00 ~ 15:30	민물장어잡기 행사(현장접수 및 전화접수 가능)
	18:00~ 19:30	초청가수 공연
	19:30~ 20:30	군민노래자랑 결승

◆장어잡기 행사 현장접수 및 전화접수 가능
(전북도 지역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